캠퍼스 낭만은 옛말…새내기는 괴로워

심리테스트·독서모임 가장 포교활동 '유사종교 주의보'

여대에선 규율 강요하며 말투·화장·옷차림 규제하기도

광주시 용봉동 전남대학교 내에 걸린 유사종교 포교활동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플랜카드.

올해 전남대학교에 입학한 A(20)씨는 최근 캠퍼스에서 마주친 한 여성으로부터 무료로 심리테스트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가 건넨 종이에는 몇 가지 질문과 각종 도형 그림이 가득했다. A씨는 거절을 못하는 성격 탓에 심리테스트에 응했다. 이 여성은 결과를 며칠 뒤에 알려줄 테니 이름과 나이, 학과, 핸드폰 번호를 적어달라고 했고, A씨는 연락처를 건네고 헤어졌다. A씨는 이후 이 여성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장소에 나갔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다. 한 종교단체의 포교 수법이었던 것이다. A씨는 "물정 모르는 대학 새내기에게 일부러 접근하는 것 같다"며 "또 연락이 올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3월 신학기를 맞아 전남대학교에는 유사종교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학교 측은 '교내에 설문조사(심리상담) 후 유사종교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를 우려해 학기 초에 각 단과대학 별로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학교 홈페이지에 '유사종교 포교 활동 주의 안내'를 공지했다. 전남대는 또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 설문조사를 통한 불법 개인정보 수집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대 관계자는"외부인이 손쉽게 출입할 수 있는 대학의 특성 때문에 대학가에 포교활동이 만연하다. 게다가 최근 포교 수법이 다양해져 심리테스트뿐만 아니라 인문학 공부, 독서모임을 결성하자며 다가온다"며 "전남대 페이스북에는 '유사종교에 넘어갈 뻔했다. 친구가 종교에 빠져 연락이 두절됐다'는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종교의 포교활동에 대한 신고가 하루평균 2~3건 들어와 출동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여대 B학과 새내기들도 괴롭다. 수능 등에 얽매였던 고교 시절을 넘기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캠퍼스 낭만을 기대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이 학과는 군대처럼 규율을 강요하고 있어서다. 이 학과는 '서비스맨이 지켜야할 기본은 예절을 지키는 일'이라는 이유로, 후배는 선배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다나까' 인사를 강요하고 있다. 또 옷차림, 화장, 손톱 매니큐어 색깔 등 개인의 취향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다. 눈썹부터 입술까지 항상 화장을 하고 다녀야 하며, 스타킹 역시 정해진 커피색만 착용해야 한다. 손톱은 빨간색이나 검정색 같이 튀는 매니큐어는 바르지 못하고 핑크나 누드톤의 색상만 발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학과 한 졸업생은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는 이유로 스타킹 색깔까지 지적당했다. 교수가 직접 학생들의 외모를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후배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학생활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참는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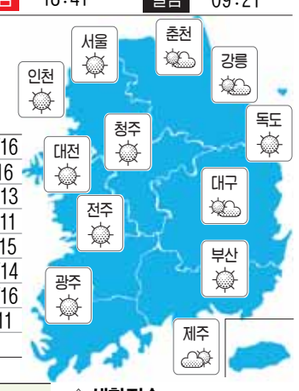
해뜸	06:41	달뜸	23:01
해짐	18:41	달짐	09:21

봄 향기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건조하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구름조금	1/17	보 성	구름조금	-2/16
목 포	구름조금	2/13	순 천	구름조금	3/16
여 수	구름조금	4/15	영 광	구름조금	-2/13
나 주	구름조금	-3/16	진 도	구름조금	-1/11
완 도	구름조금	2/16	전 주	구름조금	-1/15
구 례	구름조금	-2/16	군 산	구름조금	-2/14
강 진	구름조금	-1/17	남 원	구름조금	-2/16
해 남	구름조금	-4/14	흑산도	구름조금	4/11
장 성	구름조금	-2/1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북동	0.5
	먼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북동	0.5
	먼바다(동)	북서~북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서)	북서~북	0.5~1.5	북~북동	0.5~1.5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낮음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09	05:00
	22:19	17:04
여수	05:35	11:41
	17:38	--:--

◇ 주간 날씨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3/15	3/19	3/18	6/16	5/16	5/15	5/16

진전 없는 조선대 이사회

개방이사 추천권 위임 투표 부결

조선대 이사진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조선대 이사회는 16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진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차기 이사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한데다, 교육부가 새 이사진 선임을 요구하면서 기존 이사들은 이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사회 임원들 임기는 지난달로 만료됐고 교육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새 이사진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는 이날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임 권한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위임하자는 안과 교육부에 맡기자는 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두 안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조선대는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드 보복…제주 떠나는 마지막 크루즈 16일 중국이 사드보복을 중단하기 전까지 사실상 제주를 찾은 마지막 크루즈인 코스타 아틀란티카호(8만5000t급)가 1박2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주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5개 국립대 연합전선 구축

전남대·순천대 등 지역 첫…발전모델 구축·학술 교류

전남대와 순천대, 광주교육대 등 광주·전남 5개 국립대가 위기에 직면한 지역 국립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립대 연합 체제' 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향후 활동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대는 16일 오전 5개 지역 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국립대학 간 혁신 및 자원공유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비롯, 박진성 순천대 총장, 최일 목포대 총장, 최민선 목포해양대 총장, 고재천 광주교육대 총장직무대리가 참석했다.

5개 대학 총장들은 협약을 통해 국립대학 혁신 발전모델을 구축하고 대학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보완모델을 연구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학술 및 행정정보 교류를 넓히고 교육역량 성과를 공유하면서 확산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인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포인트)에 선정되기 위한 '전략적 제휴'라는 게 대학계 평가다.

포인트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국립대학의 역할·기능 정립, 인사·조직을 비롯한 대학 운영체제 개선, 대학회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국립대가 혁신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평가해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및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어느때보다 절실한데다,

이번 협약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 연합 체제' 구축을 위한 광주·전남 지역 첫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동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의·치대 지역인재 전형 시정 필요"

광주교육청 "전북까지 확대한 범위 개선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전남대 의·치대 지역인재 전형 범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대입 전형 계획은 이미 확정된 만큼 내년도 입학 전형에 반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오는 20일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만나 고교·대학 연계 진로진학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전남대 의·치대 지역인재전형 방식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장 교육감은 이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를 구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 전북까지 확대한 의·치대 지역인재전형 범위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대학 자율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대학교육협의회의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때 지역 설정 범위를 준수해 지원 자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범위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으로 설정해 운영해왔다. 반면, 전북대의 경우 대학 자율성을 내세워 전북 지역으로만 한정해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잇따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세방산업 생산라인 평동산단 이전 반대"

광산구 주민들 철회 촉구

광주시 광산구 주민들이 1급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세방산업 생산 라인 일부를 평동산단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광산구 농민회, 참 좋은 광산포럼, 평동·동곡동·도산동·어룡동 주민 등으로 꾸려진 '세방산업평동산단입주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방산업 생산라인 일부를 평동산단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남산단에 위치한 세방산업은 지난 2008년부터 6년 동안 배터리 격리판 제조 과정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TCE를 배출한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세방산업은 공장 인근 하남3지구가 2018년 말 입주를 앞둬 발암물질 배출 관련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TCE를 사용하는 격리판 제조공정을 2018년까지 평동공단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했다.

/김형호기자 khh@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062)234-3222 Fax.(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관광·휴양·온천·체험·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북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 / 3월31일~6월4일
〈북큐슈 정통〉
벳부·유후인·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579,000원~
★특가상품★북큐슈 실속 1인 599,000원~
〈야마구치 정통〉
야마구치·하기·시모노세키·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가라츠·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799,000원~
항공/선박 편도 북큐슈 "봄" 상품
매주 일·화·수요일 출발 / 4월2일~6월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선박
1인 47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항공
1인 399,000원~
〈올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 1인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토요일 출발 / 4월19일~6월24일
1.항공+에어텔 1인 749,000원~
2.다낭·호이안·후에 1인 799,000원~
3.다낭·후에·밧마·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항공·선박 왕복 제주도 "봄" 상품
매일 출발 / 3월24일~7월20일
〈광주〉제주도 웰빙여행 1인 299,000원~
〈목포〉선박왕복 제주도 여행 1인 189,000원~
※4/28,4/30,5/3,5/5은 골드위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골프상품 인센,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제주상품은 석식 2회,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동다 2003-1호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A320-200 좌석:149석